광주 문 닫자 전남으로…코로나 방역 풍선효과 심각

나주 스크린골프장·헬스장 등 원정고객 쇄도 예약 힘들어

유흥주점·단란주점도 호황…코로나 재확산 우려 목소리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광주시가 감염 가능성이 높은 장소의 활동을 제한하자 다른 지역으로 옮겨 접촉을 이어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다.

광주에서 실내골프연습장이나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주점 등의 이용이 막히자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 나주 등으로 옮겨 모이는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자칫 감염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광주시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하면서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배드민턴·탁구·수영 등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집합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됐다.

광주지역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지난달 27일부터 무려 18일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최장 25일 동안 운동을 할 수 없다보니 지역민들이 타 지역 실내체육시설을 찾아 가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나주지역 스크린골프장은 주말과 평일 저녁 시간에는 예약이 힘들 정도다. 나주의 경우 광주와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스크린골프장과 헬스장 이용이 가능하다.

나주 빛가람동 A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13일 오전부터 이용자들이 가득 들어차 밤 9시 이후에나 예약이 가능했고 인근 B 스크린골프장은 아예 예약조차 불가능했다. 쇄도하는 예약전화 받느라 다른 전화 응대가 곤란할 정도다.

스크린골프장 업주는 "광주에서 스크린골프장이 집합금지로 문을 열지 않자, 나주를 찾아오는 광주 손님들이 많다"고 말했다.

헬스클럽도 마찬가지다. 24시간 운영중인 나주 빛가람동 C헬스장은 '1일 이용자들'로 성황이다.

하루 이용권이 2만원으로, 헬스크럽 한 달 이용권(10만원)의 5분의 1이나 되지만 광주에서만 30명이 넘게 찾는다.

인근의 또 다른 헬스장은 1대 1 개인 트레이닝 전용 헬스장이지만 광주 '헬맨'(헬스장 이용자)들의 문의가 쏟아지자 '하루 이용권' 판매를 시작했다. 하루 1만원에도, 지난달 27일부터 매일 광주에서 나주를 찾는 이용자들이 20~30명에 이른다는 게 헬스장측 설명이다.

헬스장 관계자는 "개인 PT 전문인데 문의가 하루 50통 넘게 들어와 최근 1일 입장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술집도 호황이다. 나주의 경우 광주와 달리 유흥주점·단란주점 등도 운영중이다. 혁신도시 일대에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과 관련 기업 근무자들은 광주가 아닌, 나주에서 술자리를 갖고 광주로 옮겨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도 간 차이를 보이는 방역 수준이 자칫 주춤하고 있는 코로나 확산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시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것은 '강화된 거리두기'를 잘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틈새를 이용한 방역망을 흔드는 행태가 반복되면 언제든 감염·재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동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 확보

광주시 동구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

13일 동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동구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내년부터 선교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으로 너릿재 누릿길(연결산책로) 및 명품산책로(화순간 구도로)를 정비하고, 이와 연계하는 순환형 동선체계의 거점시설로 너릿재 유아 숲을 새 단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추석 앞두고 '미리 성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된 13일 오전 광주시 북구 영락공원에서 시민들이 추석을 앞두고 성묘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교육청,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원격 회계교육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K-에듀파인 원격 회계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원격 시범교육으로 앞으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하더라도 실시간 원격교육으로 사립유치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올해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 K-에듀파인이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됐다.

이에 맞춰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지원센터를 구축해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또 교육이 없는 시간에도 상설교육장을 운영해 사립유치원이 K-에듀파인을 이용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북구, 광주 자치구 최초 1조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 편성

1·2회 포함 1조 354억원

광주시 북구가 3번째 추가 경정예산 편성으로 당해연도 예산 1조원을 넘어섰다.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다. 이번 추가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과 생활SOC사업 등 민선 7기 역점시책을 반영한 것 이라는 게 북구의 설명이다.

13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제3회 추가 경정예산을 세워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54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 대비 806억 원(8.4%)이 증가했고, 지난 1회 추경(508억원)과 2회 추경(1939억원)을 포함하면 본예산 7101억 원 대비 46%가 증가했다.

북구는 코로나19 긴급대책, 민생안정에 중점을 뒀던 1·2차 추경과 달리 이번 3차 추경은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각종 투자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편성 내역으로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53억원 ▲코로나19 예방·지원 19억원 ▲북구 종합체육관 건립 49억원 ▲중흥 복합공공도서관 건립 34억원 등 코로나19 대응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SOC사업에 총 191억원 등이다. 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41억원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8억원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 30억원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개관 11억원 등 도심 활성화와 주요 현안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대, 입점 업체 임대료 50% 추가 인하

광주대학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내 입점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했던 '3개월 임대료 50% 감면'을 추가로 실시한다.

광주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작한 임대 운동'에 동참해 교내 사진관과 편의점, 카페 등 15개 매장의 임대료를 50% 인하한 바 있다. 이번 방침에 따라 교내 입점 업체는 9월부터 11월까지 임대료 50% 추가 감면받게 된다.

김혁종 총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교내 입점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한 상황에서 고통 분담과 상생발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대는 코로나19 재확산세를 감안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추석 이후인 10월 16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비대면 추가 연장은 인구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명절 기간 집단감염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역 사회와 학교 안팎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채희종 기자 chae@

전남교육청 '가족사랑 세대공감' 인성교육

추석 맞아 편지쓰기 등 진행

전남교육청이 추석을 맞아 '가족사랑 세대공감' 인성교육 수업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피로도가 높아지고,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족 친지들간 만남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명절을 뜻 깊게 보내자는 차원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전 학교를 대상으로 '가족사랑 세대공감' 이라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성을 주제로 한 수업은 물론 학생들이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영상편지와 문자보내기, 손 편지쓰기 등 효·나눔 특색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 교육청은 또 '감사해孝 사랑해孝 건강해孝' 캠페인 현수막을 제작해 학교와 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배너를 게시하는 등 전남교육공동체가 '효' 실천의 지를 다지고 감사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33명 복직" 시도교육청에 요청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 회복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2016년 직권면직된 노조전임자 33명에 대한 복직을 추진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자로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33명의 관할청인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인천·제주·세종 제외)에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취소에 따른 노조전임자 복직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자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가 필요하다고 조처했다.

전교조 노조전임자 34명은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정부의 복귀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해직교사가 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옅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